

### 오뚜기, 컵라면에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표기 적용

오뚜기가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해 컵라면에 점자를 표기한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취식 편의성을 높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제품명과 물 붓는 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기호까지 점자로 표기했다. 점자의 위치를 쉽게 인지하도록 점자의 배경은 검은색으로, 점자는 흰색으로 인쇄했다. 점자 표기는 컵누들 김치와 얼큰 쌀국수를 시작으로 오뚜기 컵라면 전 제품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 대한민국 '백신 개발'에 통 큰 사재 출연

# 정몽구, 고려대 백신혁신센터 설립에 100억 쾌척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현대차그룹-고려중앙학원 약정 체결식 감염병 예방·백신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 고대의료원 '정몽구 백신혁신센터' 명명 정 명예회장 "감염병 극복에 힘이 되길" 김재호 이사장 "백신 개발 큰 기여할 것"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이 고려대의료원이 서울 성북구 정릉에 내년 9월 문을 열 예정인 백신혁신센터에 사재(私財) 100억 원을 기부한다.

현대차그룹과 고려중앙학원은 8월 31일 오후 3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기부금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몽구 명예회장을 대신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약정서를 체결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 김영훈 의무부총장과 현대차그룹의 김걸 사장, 공영운 사장도 함께 했다.

정 명예회장의 기부금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국산 백신 개발과 연구 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된다. 고려대의료원은 정 명예회장의 뜻을 기리고 기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백신혁신센터를 '정몽구 백신혁신센터'로 명명했다.

정 명예회장은 이날 정 회장을 통해 밝힌 기탁 취지에서 "현대차그룹을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 국산 백신 개발에 기여할 백신혁신센터에 기부하게 됐다"며 "감염병을 극복하여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연구진으로 구성된 고려대의료원이 백신혁신센터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백신 주권(主權)을 확보하는 과정에 명예회장의 뜻이 더해져 의미가 깊다"며 "명예회장의 기부가 글로벌 백신 개발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 명예회장의 기부금은 백신혁신센터 설립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감염병 예방과 치료 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정몽구 백신혁신센터		
주요사업		
원천기술 개발	WHO 지정 백신 연구 협력센터 지정	
	▶ 코로나 범용백신 항원구조 최적화 ▶ 주요 바이러스 항원 구조 최적화 ▶ 주요 RNA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pipeline 운영	
	▶ <b>특허분식</b> ▶ 백신 및 치료제 효능 극대화 원천 기술 개발	
유효성 평가 및 전임상 연구 플랫폼 구축	유효성 평가 및 전임상 연구 플랫폼 구축 ▶ 유효성 평가 및 전임상 연구 진행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 ▶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인력 배출	
	▶ 교육 관련 국제 협력체계 구축 ▶ 기업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 예산 150억/10년	50억 (3년)	50억 (4년)

8월 31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기부금 약정 체결식에서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왼쪽)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약정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래 오른쪽 사진은 고려대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 사진제공 | 고려대학교

터 설립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감염병 예방과 치료 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정 명예회장은 모두가 함께 성장, 발전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을 마련한다는 사회공헌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재 8500억 원을 출연해 미래인재 육성, 소외계층 지원, 문화예술 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펼치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을 2007년 설립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해까지 13년간 사회공헌 사업에 2219억 원을 집행했으며, 직간접 수혜 인원만 해도 83여만 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현대차 정몽구 스

칼리움'을 통해 5년간 5개 분야 1100명의 차세대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섰다.

또한 2003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연휴 기간 전후를 현대차그룹 '사회봉사 주간'으로 정해 그룹 임직원 이 소외이웃과 사회취약계층을 방문해 나눔 활동을 펼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 명예회장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3년 고려대에서 경영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올해 7월에는 미국 '자동차 명예의전당'으로부터 현대자동차그룹을 이끈 글로벌 리더라는 평가를 받으며 한국인 최초로 자동차 명예의전당에 헌액되기도 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고려대의료원 '정몽구 백신혁신센터'의 청사진

## 감염병 연구 특화...뉴노멀 시대 '백신 연구 허브'로

바이러스 분야 국내 최고 연구 역량 정책 자문·백신 전문인력 양성 선도 국제전문자문단 갖춘 글로벌센터로 산·학·연·병 협업 '게임체인저' 기대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백신 개발 및 확보에 사활을 건 경쟁을 벌였지만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이 가장 먼저 성공하면서 백신 보급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각각 위탁 생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백신개발 원천기술이 없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설립되는 '정몽구 백신혁신센터'는 우리나라의 K-백신 개발을 통한 '백신주권' 확보에서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몽구 백신혁신센터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의료원에서 4.3km 떨어진 성북구 정릉동의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에 들어서며 의료원과 유기적인 협력 연구에 들어간다. 메디사이언스파크는 대지 2만

3574m<sup>2</sup>(7144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등을 갖추고 있다. 4층에는 백신혁신연구센터 및 참여 교수진 연구 인프라를 조성하고 5층에는 일반 및 감염 동물실험실 등 최첨단 감염병 연구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이곳에서 혁신적 감염병 연구를 통해 감염병 대응책 개발을 위한 백신 개발과 보건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백신 및 치료제 원천기술 개발과 감염병 연구를 선도한다는 목표로 3단계 로드 맵을 마련했다. 우선 ▲2024년까지 백신항원을 발굴하고 ▲2025~2027년 다가항원 발굴 및 탑재기술 개발 ▲2028~2030년 세계보건기구(WHO) 백신연구협력센터로 지정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4년의 연구 단계별로 5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하게 된다.

고려대 의대와 안암·구로·안산병원을 갖추고 있는 고려대의료원은 그동안 바이러스 및 감염병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1976년 이호왕 명예교수가 신증후성출혈열을 일으키는 한탄(Hantan)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데 이어 백신인 한타박스도 개발했다. 1998년 신증후성출혈열 연구소를 설립하고 신증후성 백신개발과 중증호흡



정몽구 백신혁신센터가 들어서는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의 호린관 전경.

기증후군(MERS) 방어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산학연병(産學研病) 공동연구를 통해 백신 및 치료제 6종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고려대의료원에는 송준영, 정희진, 김우주, 박만성, 김기순, 김진일 교수 등 국내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을 통해 감염병 방역 대책에 활용하는 정부와 민간의 개발 기술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전문기관의 역할과 백신, 치료제 개발과 연구에 특화된 전문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센터에는 고려대 의과대학의 미생물학교실과 예방의학교실, 구로 및 안산병원과 대학원의 감염병 연구 전문 교수들이 참여한다. 또 미국, 영국, 벨기에, 일본, 홍콩, 칠레, 남아공 등의 대학과 전문연구기관으로 이루어진 국제전문자문단을 갖춰 감염병 연구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5G 속도는 SKT, 커버리지는 LGU+"

과기부, 올해 '5G 서비스 커버리지·품질평가' 발표 개선됐으나 소비자 불만 여전... "망 투자확대 필요"

5G 품질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도 여전히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중간 결과를 8월 31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5G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3사 평균 808.45Mbps로, 지난해(690.47Mbps)보다 117.98Mbps 향상됐다. 업로드 속도는 평균 83.93Mbps로, 전년(63.32Mbps)보다 20.61Mbps 개선됐다.

통신사별 다운로드 전송속도를 보면 SK텔레콤이 923.20Mbps로 가장 빨랐고, KT(782.21Mbps)와 LG유플러스(719.94Mbps) 순이었다. 5G망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LTE 전환율은 다운로드 기준으로 3사 평균 1.22%(전년 5.49%)로 개선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1.17%), LG유플러스(1.22%), KT(1.26%) 순으로 조사됐다.

5월 기준 전국 85개 시·읍·면의 5G 커버리지 지역 3사 평균 면적은 6271.12km<sup>2</sup>로 나타났다. 서울·6대 광역시는 임야 등을 제외한 도시지역 대부분, 78개 중소도시는 수도권 밀집지역, 도심지역 등 주요 거주·활동지역 위주로 5G가 구축됐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6805.25km<sup>2</sup>로 가장 넓었고, KT는 6333.33km<sup>2</sup>, SK텔레콤은 5674.79km<sup>2</sup>로 나타났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약 4500여개 중 5G를 이용 가능한 시설 수는 4월 기준 3사 평균 3707개다. 통신사별로는 KT 4205개, SK텔레콤 3923개, LG유플러스 2992개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5G에 대한 이용자 체감 품질이 더욱 개선되기 위해서는 통신 3사가 망 투자를 확대하고, 적합한 5G 응용서비스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롯데리아, 2021대한민국 대표 레전드버거 선발전

롯데리아가 2021년 대한민국 대표 레전드버거 선발전을 개최한다. 8월 13~20일 진행된 사전 투표에 약 3만 명이 응모해 예선 투표를 위한 톱10 버거를 선정했다. 1일부터 7일까지 톱10 버거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한 버거를 선발하는 예선 투표를 진행한다. 이어 8~14일 2019년 레전드버거 투표 1위를 차지한 오징어버거와 겨루는 2차 결선 투표를 연다. 최종 선발된 2021년 레전드버거는 기존 오리지널 버전과는 다르게 더욱 푸짐하고 알차게 구성해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곰표 굿즈' 만나오"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2일까지 지하1층 식품관에서 대한제분과 함께 곰표하우스 팝업 스토어(사진)를 운영한다. 대한제분의 밀가루 브랜드 곰표 브랜드를 활용한 맥주, 쿠키, 티셔츠 등 굿즈 30여 종을 만날 수 있다. 현대백화점과 대한제분이 함께 개발한 '곰표 밀누끼'를 비롯해 곰표 밀맥주 전용잔, 밀는 아이스크림 등이 대표 아이템이다.

## 애경산업 추석 맞이 '랩신 위생물세트' 내놓아



애경산업이 추석 선물용 '랩신 위생물세트' (사진)를 선보였다.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길러주는 '랩신 V3 컬러체 인징 포밍 핸드워시', 휴대가 간편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랩신 V3 손소독 티슈', 유해세균을 제거해 손 및 피부를 살균 소독해주는 '황시마스크(KF94)' 등으로 구성했다. 4만 원대인 고급형 선물세트 2종과 2만~3만 원대인 실속형 선물세트 3종으로 이뤄졌다.